

韓國青銅器時代의 文化

尹 武 炳

I

최근 약 一五년간에 있어서의 한국 先史考古學의 연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업적의 하나로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青銅器時代의 設定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한국에 있어서의 청동기시대의 설정에 대하여서는 일본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번 美術展에는 이 청동기문화에 관한 주요한 유물을 다수 포함하여 전시하게 되었다.

해방후 한국에서는 청동기를 출토한 선사유적의 수가 점차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자료의 증가는 그 당연한 결과로서 청동기시대의 설정을 긍정할 생각이 대두하게 되었다. 이 청동기시대에 대하여서는 한발 앞서 북한의 학자들이 一九五五년에 평북 江界市의 公貴里에서 발견된 住居址를 발굴하여, 五九년에 간행된 그 조사보고서에 처음으로 청동기시대의 존재를 주장한 바 있었다.

한국에 있어서의 新石器時代 이후의 선사문화는 아나시피 櫛文土器文化와 無文土器文化의 두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일본의 고고학자가 한국에서 조사연구에 종사하고 있었을 때까지는 이 두개의 선사문화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분명치 못한 점이 적지 않았으며 대략 생각하기들이 들은 같은 石器時代에 속하는 두 系統의 集團들의 문화로서 시기적으로 同時存在的인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후 이 두 문화는 層位的으로 先後의 推移關係를 파악할 수 있는 유적들이 발견됨에 따라

시기적으로 櫛文土器문화가 앞서 있으며 無文土器문화는 뒤늦게 출현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 두 문화의 선후관계의 확인은 해방후 새로 출발한 한국선사고고학의 연구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업적의 하나로서 크게 평가될 수 있는 가치를 갖고 있다.

앞서 말한바 있는 公貴里유적은 이 후자의 무문토기문화에 속속되는 대표적인 유적의 하나인바, 북한의 고고학자가 이러한 무문토기계통의 유적에 대하여 또는 그 한 類型인 角形(뿔이형) 土器 유적에 대하여 처음으로 청동기시대의 설정을 주장하기 시작했을 무렵에 제시한 근거는 그리 유려한 것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후 이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가 진행되고 자료가 증가됨에 따라 청동기시대에 대한 인식은 깊어졌으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 무문토기문화를 가리켜 청동기시대라고 주장하는 생각은 일반적인 정설로 취급되고 국가에서 편찬한 교과서에서도 그것을 채용함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는 청동기시대를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존재는 이제와서는 틀림없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러나 한편 이 청동기시대에 대한 고고학적연구의 실정은 아직 했수가 알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 연구상에 있어서의 문제점의 하나로서는 무문토기문화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청동기시대 또는 그 문화에 대한 연구가 서로 잘 밀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내용적으로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일면을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무문토기문화의 주인공은 현재의 한국인의 직접적인 조상들이며 오랜 시일에 걸쳐 국토의 전역을 점유하고 폭 넓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 무문토기문화는 그 자체내에 많은 類型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유형구분에 대한 고고학적 작업이라던가 그들에 대한 編年的연구는 충분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이 무문토기문화의 초기단계로부터 이미 청동기의 사용이 시작되었는지의 문이 없는 바가 아니며 또 어떤 청동기가 출현하고 그것이 어떤 발달을 이루어 왔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미심한 점이 한들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에

있어서의 이러한 연구의 수준을 반성한다면 앞서 말한바와 같이 무문토 기문화의 출현을 가지고 간단하게 청동기시대라고 규정한다는 것은 매우 조급한 결론이라고 주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II

한국에서 출토된 청동제유물 중에서 가장 발견수가 많으며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靑銅短劍, 즉 일본에서 말하는 細形銅劍을 들 수 있다. 현재 까지 발견된 세형동검의 총수는 확실치 않으나 나의 추산으로는 약 二〇〇개를 넘어 三〇〇개에 가까운 동검이 출토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세형동검의 형태는 매우 특수한 것으로서 그 특징의 하나는 손으로 잡는 자루의 부분, 즉 劍柄이 劍身과는 별도로 제작된 후 그들을 조립하여 비로소 완전한 동검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또한 가지 점은 劍身 중앙에 용기된 굽은 등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손잡이의 부분은 木製이거나 또는 어떤 有機質物로 만든 것이 많았는지 대개는 부식되어 형태가 없어졌으므로 劍身들만이 잔존하여 출토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검신들은 형태가 단순하며 별로 대단한 차이점을 엿볼 수 없으나 그래도 그 細部の 특징에 따라 식별한다면 이들을 二개의 형식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들 구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으나 나는 이 二개 형식중 古式의 것을 I式細形銅劍, 그리고 새로운 형식의 것을 II式細形銅劍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세형동검들은 분명히 한국에서 제작된 고유의 청동기로서 그 생산지는 명백하게 한국에 한정되고 있으며 그 分布에 있어서의 북쪽 한계선은 鴨綠江의 남쪽을 흐르고 있는 淸川江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국경선인 압록강을 건너 중국의 遼寧省지방에서는 세형동검과 형식상으로는 기본적으로 특징이 동일한 遼寧式銅劍, 전에는 滿洲式銅劍이라고 부르던 청동단검들이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국경을 접하

고 있는 이 두 지역에서 출토되는 요녕식동검과 세형동검들이 그 형태 상으로 보았을 때 서로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바로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이미 지적된 바 있었으나 위에서 말한 것처럼 세형동검에 대한 형식을 두개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그러한 차이점을 요녕식동검과 비교할 수 있게 된 결과 I식세형동검이 보다 더 요녕식동검의 전통을 강하게 이어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즉 세형동검에 대한 二개의 형식분류는 한국에서 제작된 세형동검의 系譜가 요녕식동검을 祖型으로 하여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적지 않게 도움을 가져왔었다.

그러면 이 세형동검이 어느 때쯤부터 한국에서 제작되기 시작하였는 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한국산의 세형동검은 바다를 건너 일본에 수입되었으며 九州지방의 彌生유적으로부터 적지 않은 수가 출토되었다. 이 구주에서의 세형동검의 출현시기에 대하여는 彌生時代 전기의 후반, 즉 기원전 一〇〇년을 약간 소급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세형동검을 제작하기 시작한 것은 물론 그 보다 앞선 것이 틀림 없으므로 대략 짐작하여 그들보다 一〇〇년 내지 二〇〇년쯤 더 오래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이상으로 너무 시대를 올려 잡을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이 년대에 대하여서는 아래에서 다시 말하겠으나 대체로 말해서 기원전 四세기의 말경이나 三세기의 초엽으로 추측하고 있다.

III

그런데 한편 우리 나라의 선사시대 유적에서는 이러한 한국산의 세형동검들보다 훨씬 년대가 오래된 청동기들이 출토된다는 사실이 차츰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형동검의 祖型으로 볼 수 있는 요녕식동검을 비롯하여 같은 요녕지방의 所産으로 짐작되는 청동

기들이 아직 그 수요는 얼마되지 않으나 국내 각지로부터 확실한 出土
 例가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 요녕식동검은 출토지 불명의 四
 개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약 一七개가 알려졌으며 그 이외에 양부의 단
 추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진 裝飾具이며 또는 자루에 작은 몇개의 突起
 를 만든 특수한 형식의 刀子, 兩翼式의 활촉, 扇形으로 된 銅斧 등, 종
 류는 그리 많지 않으나 남북한을 통하여 三〇점에 가까운 유물들이
 발견된 것으로 손꼽을 수 있다. 이러한 청동기들은 그 발견수가 극히
 제한되고 있고 또 한국내에서 그러한 청동기들이 제작되었다는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움으로 역시 그들에 대해서는 인접한 요녕성지방으
 로부터 들어온 外來品으로 보는 것이 온당한 견해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은 외래품이라고 생각된다 하더라도 이미 그러한 청동제
 품이 한국에서 사용되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청동기시대의 개시를
 이 시기까지 소급시켜서 설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한국의 학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실
 제로 청동기의 제작에 대한 기술이 도입되어 한국내에서 청동기를 주조
 하기 시작한 시기부터를 엄격한 뜻에서의 청동기시대로 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며 나는 이 후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 주장해 왔었다.

원래 이 청동기시대라는 개념은 기술사적인 개념으로서 그 설정의 기
 준에 대해서는 歐羅巴의 先史遺蹟에서도 異見이 대립되어 왔으며 소수
 의 외래품이라 할지라도 이미 청동기가 발견되기만 하면 곧 청동기시대
 로 간주하는 견해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청동기에 대한 주조개시를 가
 지고 비로소 청동기시대에 진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대립되어 왔
 다고 한다. 청동기의 주조가 시작되기 이전의 단계에서 외래품의 청동
 기라 할지라도 그 사용이 이미 보급되어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상태에 도
 달하고 있다면 물론 청동기시대의 설정을 그 시기까지 소급시킬 수 있
 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사용이 실제로 보편화된 시기를 고고학적으
 로 규명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닐뿐더러 어느 정도의 상태를 가리

켜 보편화한 것으로 인정해야 할지 서로의 견해상의 일치점을 찾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북잡한 문제는 생략하기로 하고 아뭏든 이 요녕식동검이라던가 그 계
 통의 유물을 출토한 유적을 들어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구분하게
 된다면 그들 년대는 물론 기원전 三〇〇년을 훨씬 넘어서 요녕성에 있
 어서의 유적들의 년대에 접근시키지 않을 수가 없다. 종래 한국에서 발
 견된 요녕식동검은 그 모두가 후기에 속하는 퇴화형식의 동검들 뿐이었
 으나 최근에 이르러 남북한을 통하여 가장 전형적인 요녕식동검의 출토
 가 연이어 발견되었다. 특히 그 중에서 출토상황이 명백하고 共存遺物
 이 확실하며 가장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이번 전시품
 중에 진열되어 있는 扶餘松菊里출토의 동검이다. 이와 같이 전형적이며
 가장 오래된 형식에 속하는 요녕식동검이 한국의 중부지방에서 발견된
 한 무덤에서 출토되었다는 사실은 한국의 학자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게 되었으며 그 결과 우리 나라의 청동기 시대는 이 전형적인 요녕검
 의 년대가 가르키는 기원전 九~八세기 경에는 이미 도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학계를 강하게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그
 러나 이보다 더 적극적인 견해를 주장하는 입장으로서 이러한 요녕지
 방의 청동기문화의 전파에 앞서 시베리아의 카라스크문화 등으로부터
 의 청동기의 영향을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다.

IV

이상 말한 제 1기의 청동기들은 출토유적으로 구분한다면 住居址와
 墳墓유적으로부터 발견되며 그 중 확실한 자료로서는 角形토기 주거지
 로부터 一, 그리고 石棺墓 등의 분묘로부터는 五개가 발견되었다. 종
 래는 이 분묘관계의 유적들 중에는 支石墓도 포함해서 생각하고 왔으나
 지금에 와서는 나의 생각으로서 支石墓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

게 되었다. 이 시기는 이미 대국적으로 보아 지식묘의 시기를 지난 후라고 짐작된다. 그리고 이 시기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서는 공존유물 중에 석기를 수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국산품인 세형동검의 시기가 되면 청동기의 종류와 수량이 많아지는데 그 출토유적은 모두가 분묘유적으로 한정되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주거지로부터의 확실한 출토에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들 분묘의 형식으로는 과거에서부터의 전통을 계승한 石墓가 있으며 또 하나의 형식으로는 간단한 木棺 또는 木槨을 사용한 소위 土壙墓의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그중 석묘가 보다 오래된 것으로서 그 내부에서는 1식의 세형동검들이 발견된다. 그래서 나는 이 석묘를 구축하고 1식검을 사용한 시기를 한국에 있어서의 청동기시대의 제Ⅱ기로 구분하고 있다. 이 시기의 특징으로서는 청동기의 종류중에 武器와 宗教的用具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존유물로서는 非實用化된 磨製石鏃과 天河石製의 반월형의 飾玉의 사용이 현저한 점을 들 수 있는 이외에 또 副葬土器로서는 흑색의 長頸壺와 口緣部에 굽은 粘土帶를 들른 화분형 토기의 셋트가 定型化된 것을 열거할 수 있다. 天河石製의 석옥은 이미 제Ⅰ기의 松菊里유적과 淸川江邊인 价川龍興里의 일관유물중에 등장하고 있으며 한국의 일부에서는 曲玉의 기원을 이것에 결부시켜서 생각하려는 학자도 있다. 부장토기중의 점토대토기는 최근 일본 福岡市 諸岡유적에서 그 파편이 발견되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제Ⅲ기인 토광묘의 시기는 세형동검의 형식상으로는 Ⅱ식검의 시기라고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1식검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그 사용이 계속되었으며 분묘 내부에서 두 형식의 동검이 함께 출토된 예가 적지 않다. 이와같이 新古의 두가지 세형동검들이 공존한 예가 많았던 것이 원인이 되어 한국 청동기에 대한 편년적 연구는 오래동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왔다. 제Ⅲ기의 청동기로서는 역시 무기가 계속해서 주요한 지위를 유지하였으며 동검들 이외에 銅鏃과 銅戈의 발전이 증가되

었고 한편 종교적인 儀器로서는 제Ⅱ기에 이미 출현한 多鈕粗文鏡이 多鈕細文鏡으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다른 종류의 새로운 청동기들이 많이 제작되었기 때문에 종교적유물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저하된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된다. 제Ⅲ기에 새로 등장된 것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서는 車馬具를 비롯하여 容器이며 工具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품이 적지 않으며 그중에서 수레의 부속품인 車輿具는 북한지역에서만 발견되었다. 마구 종류로서는 남한에서는 馬鐸등 소수의 유물이 발견되었으나 남한지역에서는 아직까지 騎馬風習은 盛行되지 않았던 것 같다. 남한에서 현저한 종류중에는 특이한 형태의 방울들이 많으며 이들은 종교적・呪術的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 제Ⅲ기에는 이미 석기는 거의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으며 그에 대신하여 새로운 범주의 유물들이 등장하여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것은 청동기에 다음가는 단계의 금속기인 鐵器의 출현인데 그러한 철제품중에서 가장 주요한 물건으로서는 鐵劍, 鐵戟, 鐵戟등 鍛造의 무기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재갈 등 마구와 또 鐵斧의 사용이 알려져 있다. 무덤에 따라서는 청동제품보다 이러한 철제품을 훨씬 많이 부장한 유적들이 드물지 않다. 이러한 철제품과 함께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또 한 종류의 유물들은 중국 본토로부터 수입된 漢式유물들이 발전되지만 그들중에는 樂浪古墳의 副葬品과 동일한 것이 적지 않게 출토된 바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漢代鏡이라던가 五銖錢 등貨幣는 제Ⅲ기의 연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자료들까지 이용하였으며 제Ⅲ기의 연대에 대해서는 그 말기, 즉 세형동검 사용의 종말기를 기원후 一세기의 말경으로 추측하고 있다. 한편 이 제Ⅲ기의 개시기에 대해서는 鍛造의 철제무기의 등장을 중요시하고 그 한국에 있어서의 출현연대를 漢武帝의 郡縣設置 이후로 생각하고 있으나 그것에 약간의 연대적인 폭을 줄여서 제Ⅲ기의 시작을 대략 기원전 二세기의 중간경으로 짐작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

서 말한 바와 같이 제Ⅰ기의 개시는 기원전三〇〇년경임으로 그로부터 이 기원전二세기의 중엽에 이르는 약 一五〇년간을 제Ⅱ기의 계속된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V

이상 말한바를 요약하면서 滿洲로부터 한국에 걸친 청동기시대를 개관한다면 요동반도로부터 일부 遼河 서쪽의 지역에서는 기원전 八세기 경에는 이미 요녕식동검으로써 대표할 수 있는 순수한 청동기문화가 성립되고 있었다. 이 청동기문화는 중국계통과 북방계통의 요소가 혼합되면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역시 하나의 지역적인 색채를 강하게 띄고 있는 특색이 있는 청동기문화이다. 이 문화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중국의 학자들도 그들을 東胡民族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 이 동호민족과 古朝鮮은 요동지방에서 접경하여 문화적으로도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동호문화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한국에 청동기문화가 파급되고 그 사용이 시작되었는데 그 파급된 연대는 이의로 빠른 시기에 시작되었던 것 같으며 기원전 五세기를 훨씬 소급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 요녕지방으로부터의 청동기의 내도한 시기를 한국에 있어서의 청동기의 제Ⅰ기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동호민족과 고조선의 관계는 그후 중국 전국시대의 燕의 세력이 요동지방으로 진출함에 따라 斷絶된 사정을 史記 등의 문헌에 의하여 추측할 수 있는데 이 요동진출은 연의 昭王때의 장군인 秦開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동호는 북쪽으로 이동하고 한편 고조선의 영역은 淸川江 이남으로 퇴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은 중국의 정치세력, 또는 문화적인 교섭이 처음으로 한반도에 명백한 흔적을 남기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명시하는 고고학자료로서는 明刀錢을 들 수 있으며 이 명도전들만을 다량으로 매장한 특수한 성격의 退藏유적들은 그 分布狀

況이 대체로 淸川江을 한계로하여 그 북쪽의 평안북도지방과 만주의 요동, 熱河지방을 거쳐 河北省에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러한 역사적사건을 배경으로하여 청천강 이남의 고조선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되고 형성된 것이 위에서 말해 온 세형동검으로써 대표할 수 있는 한국 고유의 청동기문화이며 이 세형동검문화의 분포는 현재로서는 청천강 이남으로 국한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이 한국 청동기문화에 대한 제Ⅱ기의 개시를 전국시대 燕세력의 요동진출과 결부시켜서 생각하였으며 기원전 三〇〇년경으로 추정할 바 있었다.

한국의 청동기문화가 요녕지방의 진통을 이어 받아 성립된 것은 틀림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요녕지방과는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청동기를 제작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우수한 청동기문화를 발달시키고 있다. 東胡의 영향은 일찌기 사라지고 그에 대신하여 새로히 중국의 戰國文化와 북방의 匈奴文化의 요소가 유입되었으며 그중 전자의 것으로는 車輿具, 그리고 銅鉞, 銅戈 등의 무기가 韓國化하여 채용되었으며, 후자의 것으로는 북방식의 銅鏡이라고 불리우는 용기, 觸角式把頭의 동검, 또는 경복영천에서 발견된 虎形·馬形帶鉤 등을 들 수 있다. 燕의 공격을 받아 북쪽으로 이동한 동호민족은 한때는 동방으로부터 몽고의 匈奴를 위협하기도 하였으나 기원전 三세기 말경에 이르러 흉노에 冒頓單于가 득세한 이후로는 그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흉노의 세력은 요녕지방에 미치게 되었던 것 같으며 그러한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유적이 요녕성 西豊縣의 西岔溝에서 발견된 바 있다.

기원전 三세기 말에서부터 二세기의 초에 걸친 시기는 북쪽에서 흉노 세력이 대두됨과 함께 중국본토에서는 前漢이 성립되고 또 한반도내에서는 고조선에 이어 衛滿朝鮮이 건립되는 등 역사적으로 현저한 변천이 야기된 시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변동에 자극을 받은 결과인지 모르겠으나 한국의 청동기는 점차로 제Ⅲ기의 성격을 띄게 되었으나 역시 그에 대한 결정적인 것으로서는 漢의武帝에 의한 郡縣設置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원전 二세기 말에 이루어진 이 漢의 침략은 북방 배후에

있는 흉노 세력에 대한 견제를 위한 것이라고 문헌사가들은 말하고 있으나 아무튼 이것을 계기로 하여 완전히 제Ⅲ기에 접어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 제Ⅲ기는 문화의 발전단계로 말한다면 이미 다량의 철기를 동반하고 있으므로 가히 청동기시대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청동기는 처음에는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것이 분명하며 그 시기는 이 제Ⅲ기의 초두, 즉 실연대로 말해서 기원전 二세기의 후반이 되는데 北九州지방에서는 이러한 한국산의 청동기들이 적지않게 발견되었다. 이 北九州지방 출토의 세형동검이나 다뉴세문경들은 앞서 몇번이나 말한 바와 같이 순수한 한국국산의 청동기들이며 절대로 중국에서 제작된 물건들이 아니다. 종전에 있어서의 일본학자들 중에는 이러한 청동기들을 중국에서부터 한국을 경유하여 일본에 전래된 것으로 오해한 학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와서는 일본에서도 이러한 청동기들이 한국에서 제작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일본에서도 청동기 제작기술은 곧 소화되었으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취향에 맞추어서 平形銅劍, 廣形銅鉞, 銅戈들을 만들게 되었고 그중 일부 소수의 유물은 逆流하여 남한의 유적에서 드물게나마 발견되고 있다.

(이 글은 지난 四月 一三日 일본 경도국립박물관에서 개최된 「한국미술五천년전」 강연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약간 간추린 것이다.)

(충남대학교 박물관장)